

전북 출신 여성 한덕세의 증가주 내 활동 연구

최희영*

목 차

- | | |
|--------------------------------|------------|
| 1. 머리말 | 4. 독립운동 |
| 2. 20세기 초 한인 이민사와 전북 출신 여성의 부재 | 5. 맺음말 |
| 3. 전북 출신 여성 한덕세의 증가주 내 활동 | 참고문헌 |
| | <Abstract>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전북 출신 양반 자제로 태어나 이화학당 졸업 후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이주한 한덕세의 이주 후 정착지인 캘리포니아 중부(‘증가주’로 약칭)에서의 활동을 고찰한다. 한덕세는 남편 김형순과 스승 김호를 연결하여 3인 체제의 공동 경영으로 김형제상회와 리들리건제회사를 운영하였다. 초기 자금을 지원하고 인맥에 따른 친분을 토대로 고객을 확보하였으며 사업이 자리를 잡은 후에는 회계를 담당하였다. 또한 리들리, 다이뉴바를 중심으로 한인교회 설립과 확장에 힘쓰며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갔다. 무엇보다 그녀는 리들리 그룹 독립운동가로서 한국 중립화 통일론을 옹호하며 국민회와 대한여자애국단 주요 회원으로서 고국 독립과 한반도 안팎의 자연재해 피해민 구제,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한덕세의 경제, 종교, 독립운동 활동을 밝힌 본 연구는 전북 출신 여성이 디아스포라 독립운동사와 미주 한인 경제·문화사에 이바지한 실례를 제공한다. 더불어 같은 전북 출신으로 캘리포니아 내 사업가로 크게 성공한 김용중, 송

* 노던일리노이대학 역사학과 객원연구원, E-mail: hychoi1115@gmail.com

철 등의 존재를 함께 밝혀 당시 한인사회와 지역 경제에 전북 출신자의 기여가 상당했음을 논증한다.

주제어 : 한덕세, 전북 여성, 김형제상회, 리들리건재사업, 한인교회, 중립화 통일론, 리들리 그룹, 중가주 한인사회

1. 머리말

본 연구는 전북 출신 여성 독립운동가로 2014년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을 받은 한덕세(김덕세 혹은 Daisy D. Kim로도 기록, 1894-1977)의 미주 내 활동사를 다룬다. 캘리포니아 중부(이하 ‘중가주’로 약칭)¹⁾ 리들리(Reedley) 한인역사기념각 독립문 앞에는 12개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이 가운데 하나가 여성으로서 유일하게 한덕세를 기리는 기념비이다. 리들리 독립문은 1897년 서울에 세워진 독립문 원형을 4분의 1 크기로 축소한 형태이다. ‘독립문’이라고 새겨진 현판에는 “조선이 독립국임을 상징하기 위해 세운 역사적인 건축물인 독립문 축소물을 한인 이민 역사 보존과 미국의 다인종 다문화 단합 및 독립정신 증진을 위해 헌정한다”라고 쓰여 있다. 2010년 처음 조성된 리들리 기념각은 원래 이승만, 도산 안창호, 윤병구, 이재수, 김종립, 김호, 한시대, 김형순, 송철, 김용중 10인의 기념비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지난 2022년 12월 22일 중가주한인역사연구회가 장인환, 전명운 두 지사의 비를 기념하는 비와 함께 한덕세의 비를 추가로 설치하였다.²⁾ 필자는 이러한 기념비 설립의 연장으로서 그동안 다른 남성들에 비해 미비하게 다루어져 왔던 한덕세의 활동과 그 의미를 추적한다.

한덕세는 1894년 12월 28일 전북 무주에서 태어났다. 개신교 신자로서 이화학당에서 성악을 전공하였으며 김형순(Harry S. Kim, 1886-1977)과 결혼하였다. 남편 김형순은 독립운동을 위해 상하이로 떠난 후 1913년 활동무대를 미

1) 델라노(Delano), 리들리(Reedley), 다이뉴바(Dinuba), 팔리어(Parlier) 등의 지역을 통칭해 중가주(中加州)라 부른다.

2) 『장인환, 전명운 의사 기념비 건립』, 『한국일보』, 2023.3.17. 이 작업에 참여한 캘리포니아 주립대 명예교수이자 전 중가주한인역사연구회 회장인 차만재 교수는 “두 지사의 비를 건립한 것은 그분들의 공적에 비해 후손들이 기리는 정성이 부족했다고 느껴서 이에 보답할 수 있는 길로 비석을 세워 역사의 빛을 갠 심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국으로 옮기고 1917년경 로스앤젤레스에 정착하면서 한덕세를 불러들였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미국 삶이 시작된 것이다. 당시 리들리 지역에는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계약 기간이 끝나 본토로 이주한 한인 중 상당수가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이 한덕세와 김형순이 설립에 참여한 김형제상회(Kim Brothers Company) 등에서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한인 커뮤니티가 형성되었다.³⁾ 김형순-한덕세 부부는 메리(Mary)와 루스(Ruth)라는 이름의 두 딸을 두었다. 한덕세는 김형순이 세상을 떠난 지 약 4개월 후인 1977년 5월 5일 작고하였는데 이때 지역신문은 그녀의 부고 소식을 전하며 “캘리포니아 전역의 한인사회를 위해 힘쓴 일꾼”이라고 설명하였다.⁴⁾ 그렇다면 그녀가 증가주에서 펼친 활동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20세기 초 미주지역 한인 활동사를 다룬 국내·외 연구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⁵⁾ 특히 독립운동 활동에 관한 연구는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 주로 한인 단체 및 정치 망명자들의 독립운동,⁶⁾ 특히 한인 1세대 이민자들의 재정적 원조, 선전·외교를 통한 정치 활동⁷⁾에 주목하였다. 나아가 최근 다양한 시각에서 디아스포라 독립운동사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가령 한인 여성들의 독립운동⁸⁾이나 특정 인물의 활동사를 다룬 최근 연구들

3) 김형목, 「독립운동 재정지원을 도운 김형순과 한덕세 부부」, 독립기념관, <https://www.i815.or.kr/upload/kr/magazine/magazine/70/post-751.html>(검색일: 2023.8.3.); 「한(김)덕세」, 대한민국민회 기념재단, <https://knamf.org/%ED%95%9C%EA%B9%80%EB%8D%95%EC%84%B8/>(검색일: 2023.8.3.)

4) “Daisy D. Kim,” *The Fresno Bee*, May 7, 1977, p.11.

5) 20세기 초 하와이와 서부지역 한인들의 삶을 다룬 대표적 연구로 각각 Wayne Patterson, 2000, *The Ilse: First-Generation Korean Immigrants in Hawaii, 1903-1973*,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Marn J. Cha, 2010, *Koreans in Central California (1903-1957): A Study of Settlement and Transnational Politics*, Lanham: UPA 참조.

6) 고정휴, 2004, 「대한인동지회 회원 분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0,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417-463쪽; 이덕희, 2008, 『한인기독교회 한인기독교학원 대한인동지회』, 한인기독교회·동지회; 홍선표, 2009, 「해방 이전 대한인동지회의 조직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417-463쪽; 김도형, 2010, 「하와이 대조선독립단의 조직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9-263쪽; 홍선표, 2011, 『자주독립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재미한인의 꿈과 도전』, 연세대학교 출판부.

7) Do-hyung Kim and Yöng-ho Ch'oe, 2000, “The March First Movement of 1919 and Koreans in Hawai'i,” *From the land of hibiscus: Koreans in Hawai'i 1903-1950*, ed. Yöng-ho Ch'oe,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pp.123-152; 홍선표, 2016, 「1900~1930년대 하와이 한인사회의 선전·외교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89,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5-42쪽.

8) 이덕희, 2003, 『하와이 이민 100년』, 중앙M&B출판; 오은영, 2005, 「하와이 대한부인구제회 연구(1919~1945)」,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홍윤정, 2017, 「하와이 한인

은)9) 팔목할 만한 성과로 여겨진다. 특히 정병준, 홍선표, 이명화의 연구는 김형제상회를 함께 경영한 김호(본명 김정진, Charles Ho Kim, 1884-1968)와 중가주 지역의 또 다른 한인 사업가 김종립(1884-1973)의 생애와 독립운동을 다루고 있어 본 연구에 중요한 배경적 정보를 제공해 준다.10)

그러나 한덕세에 관하여는 단독으로 연구가 행해진 바 없다. 항일여성독립운동가 혹은 캘리포니아지역 한국인을 소개하는 홈페이지나 단행본에 1-2페이지에 걸쳐 소략하게만 다루어졌을 뿐이다.11) 더구나 그녀의 남편 혹은 이화학당 스승이었던 김호와의 관계 속에서 대략적으로만 그녀의 활약상을 밝히고 있을 뿐이어서 그녀의 다양한 활동을 이해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필자는 한글 및 영어 신문, 인터뷰 기사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디아스포라 한인 여성 한덕세의 중가주 정착 이후 활약상을 밝히고자 한다. 본문을 통해 한덕세가 20세기 초 미주 한인 여성 중에는 드물었던 전북 출신으로서 경제, 종교, 정치 등 다방면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 나갔음을 논증한다. 다만 자료의 부족으로 그녀의 개인적 활동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녀가 소속된 조직이나 관련 인물의 활동 분석으로 대신하였음을 밝힌다.

여성단체와 사진신부의 독립운동, 『여성과 역사』 26, 한국여성사학회, 1-26쪽; 장태한, 2019, 「3·1운동과 미주 한인사회」, 『한림일본학』 35,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128-161쪽.

9) 정병준, 2005, 「김호의 항일독립운동과 정치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3,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63-204쪽; Robert Hyung-Chan Kim, 2012, “Soon Hyun and His Leadership in the Hawaiian Branch of the Korean National Revolutionary Party During World War II,” *Acta Koreana* 15-1, pp.163-199; 이명화, 2012, 「재미 실업가 김종립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13-168쪽; 박종연, 2012, 「在美韓人 黃思溶의 민족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2,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57-184쪽; 홍선표, 2012, 『한국의 독립운동가들 제33권: 재미한인 독립운동의 표상 김호』, 역사공간; 박순섭, 2016, 「1920~40년대 玄樞의 재미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6,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5-47쪽; 박준현, 2017, 「하와이·미주 사회에서 閔贊鎬의 한인 교육과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9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5-42쪽; 최희영, 2021, 「전수산의 공연 활동에 구현된 20세기 초 한인 디아스포라 근대 여성의 표상」, 『한국문화』 95,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7-228쪽.

10) 정병준, 위의 논문; 홍선표, 위의 책(2012); 이명화, 위의 논문.

11) Marn J. Cha, op. cit., pp.77-78; 김형목, 앞의 글; 이윤옥, 2018, 『여성독립운동가 300인 인물사전』, 열레빗, 44-45쪽.

2. 20세기 초 한인 이민사와 전북 출신 여성의 부재

최초의 미주 한인 이민사는 1903년 1월 13일 노동자, 노동자의 배우자 혹은 직계가족으로 온 102명의 한국인이 호놀룰루 항구에 도착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후 일본계 이민자가 하와이 노동 시장을 독점하도록 한인 노동자 이민에 개입하려 했다. 그에 따라 2년 후인 1905년 4월 한국인 노동자 이민이 전면 중단되면서 하와이에는 약 7000명 정도의 한인 이민자 커뮤니티가 형성되었다.¹²⁾ 한편 초기 캘리포니아 한인사회는 주로 소규모 인삼 상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1903년에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한인은 100명도 채 안 되었고 대부분이 남성이었다. 1905년과 1907년 사이에 하와이 농장에서 일하던 한인 중 일부가 더 나은 삶을 찾아 캘리포니아로 이주했다. 미국 인구 조사국에 따르면 해당 시기에 약 1005명의 한국인이 미국 본토에 정착했다. 이 중 남성은 931명이었고 여성은 45명에 불과했다.¹³⁾

1907년부터는 하와이에서 본토로의 이주도 중단되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국인과 일본인 노동자들이 하와이, 멕시코, 캐나다로 입국한 후에 미국 본토로 재이주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시행했기 때문이었다.¹⁴⁾ 초기 미주 한인의 대다수가 미혼 남성이었기에 지역 당국은 이들의 빠른 정착을 도모하고자 1910년 ‘사진 신부’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 정책은 대부분 농장 노동자로 일하고 있던 미주 내 한인 남성 이민자와 한반도 거주 여성을 사진 교환을 통해 결혼으로 이어지게 하는 제도였다. 사진신부로 인해 각 한인 가정이 2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었고 이들은 잠시 머무는 형태가 아닌 정착민으로서 미주 사회에 적응하기 시작했다.¹⁵⁾

1910년 11월부터 1924년 10월까지 115명의 한국 사진 신부들이 캘리포니아

12) 이현주, 2002, 『한말 인천의 화교유입과 하와이 이민』, 『한국독립운동사연구』 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8쪽.

13) Jiwon Kim, 2020, “Korean Pioneer Women: Picture Brides and the Formation of Upwardly Mobile Korean Families in California, 1910s-1930s,” *Korea Journal* 60, no.1, p.216.

14) 미국과 일본은 1907년 신사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일본인 노동자들이 더 이상 미국으로 입국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이었다. 하지만 인도적 조항으로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들은 가족들을 미국으로 불러올 수 있었다. 1905년 이후 미주 한인의 법적인 지위가 일본의 신민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한인은 일본인과 동일한 법적 규제를 받았다. 이에 관하여는 김지원, 2016, 『미국의 일본인 배척운동과 한인 사진신부의 이주, 1910~1924』, 『미국사연구』 44, 한국미국사학회, 289-318쪽 참조.

15) Jiwon Kim, op. cit., p.216.

에 도착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25명의 서부지역 거주 여성들의 인터뷰를 정리한 김지원의 연구¹⁶⁾에 따르면 결혼 자체만을 위해 이주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25명 중 두 명의 사진 신부만이 결혼 자체가 주요 동기였다고 밝혔다.¹⁷⁾ 가장 두드러진 동기는 교육이었다. 캘리포니아 사진 신부 중 15명은 캘리포니아에서 더 나은 교육을 받아 새로운 기회를 누리하고자 이민을 결정했다. 그 밖에 다른 동기로는 일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 경제적 활동 추구 등이 있었다.¹⁸⁾ 전반적으로 캘리포니아 사진 신부는 하와이 사진 신부보다도 더 많은 교육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¹⁹⁾ 한국에서 교사와 간호사로 일하다가 교육을 향한 원대한 꿈을 품고 이민 길에 오른 이들도 있었다.²⁰⁾

엄밀히 말해서 한덕세는 사진신부가 아니었다. 사진을 매체로 하여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한국에서 결혼식을 마친 상태였고 이후 남편이 미국에서 고등교육을 마친 후 근거지를 서부지역으로 정하면서 가족들을 부르게 된 경우였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한인 여성의 다수를 이루었던 사진신부 중 전북 출신은 드물었다는 점이다. 캘리포니아 사진신부는 주로 지금의 북한 지역과 서울, 경상도 지역 출신이었다.²¹⁾ 앞서 언급한 김지원의 연구에 등장하는 25명의 서부지역 거주 여성 중에서도 전북 출신은 없었다. 따라서 전북 출신으로서는 유일하게 한인 여성을 대표한 한덕세의 활동사는 한인 여성사는 물론 전북 지역사에 공헌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3. 전북 출신 여성 한덕세의 중가주 내 활동

1) 경제 활동

한덕세가 정착하여 본격적으로 경제 활동을 펼쳐 나가기 시작한 1920년대 중가주 리들리 지역은 농업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었다. 리들리는 풍부한 물, 비

16) Ibid., p.207-238.

17) Ibid., p.237의 부록(Appendix) 참조.

18) Ibid., p.212.

19) Wayne Patterson, op. cit., p.236.

20) Eun-Sik Yang, 1984, "Korean Women of America: From Subordination to Partnership, 1903 - 1930," *Amerasia Journal* 11, no.2, p.8.

21) Sonia Shinn Sunoo, ed. 2002, *Korean Picture Brides: A Collection of Oral Histories*. Davis: Korean Oral History Project, p.16; 민병용, 1986, 『미주이민 100년사』, 한국매일신보사, 219쪽.

옥한 토양과 더불어 철도 서비스가 갖추어지면서 농가가 형성되었고 풍성한 들판, 나무, 포도나무 열매 등으로 유명했다. 특히 최고 품질의 과일, 견과류, 야채, 곡물 및 면화 품종을 생산해 왔으며 1946년부터는 “세계의 과일 바구니 (World’s Fruit Basket)”로 알려졌다.²²⁾ 상기한 리들리 지역 경제사에 미국에 정착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농업 전선에 뛰어든 한인 1세들의 헌신이 녹아 있었고 특히나 여성 한덕세의 노고가 깃들어 있었음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한덕세는 남편 김형순, 스승 김호와 함께 두 사업체, 즉 리들리 건재회사와 김형제상회를 거느린 인물이다. 김형제상회는 김형순과 한덕세가 리들리에서 시작한 과일 농장 사업에 김호가 합류하여 1920년 설립한 과수 농장, 과일 포장 수송 사업체였다. 이 회사는 특허품인 복숭아 묘목을 재배하여 전국의 농장에 판매하는 건재회사를 함께 경영하여 크게 성공하였다.²³⁾ 즉 과일 및 견과 나무와 덩굴의 도소매업 대량 사업으로 확장되고 이후에는 ‘리들리 건재회사(Reedley Nursery, Inc.)’란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되었다.

리들리 과수·묘목 사업²⁴⁾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갔다. 1950년대에 이르러서는 최신식의 설비와 운영 시스템을 갖추었다. 일만 삼천 평 상당의 부지를 차지하는 비닐하우스는 시야를 가리는 기둥이 없는 단단한 강철로 이루어진 혁신적 구조를 자랑하고 있었다. 조경에도 관심을 넓혀서 식물, 정원 재료, 가정용 실내 화분과 조경 램프 등을 전시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최신식 방법과 장비를 활용했다. 당시 잠정적인 해당 사업의 가치만도 \$175,000에 달하였으며 다양한 종류의 난초를 합치면 그 값어치는 더욱 증가했다.²⁵⁾ 한덕세는 김형순, 김호와 함께 미국 최초의 한국인 백만장자가 되었다.²⁶⁾

특히 김형순이 특허를 낸 르그랑(LeGrand) 복숭아는 일명 털 없는 천도복숭아로 유명하였다. 국제적 명성을 얻은 14개 종의 르그랑 복숭아 품종은 김형순이 실험한 200개 이상의 품종으로부터 골라낸 결과였다. 그는 과일 산업에서 품종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달아 특허권 취득에 몰두했다. 그가 특허권을

22) “The World's Fruit Basket,” City of Reedley, <https://reedley.ca.gov/about-reedley/history/>(검색일: 2023.8.3.)

23) 장규식, 2017, 『도산 안창호와 복미 한인사회』, 『신민회 창립 110주년 기념 미주 국제학술회의 발표집』,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216쪽.

24) 리들리 건재회사가 설립된 것은 적어도 1920년대 후반으로 보인다. 김형제상회와 리들리 건재회사가 취급 상품만 다를 뿐 긴밀하게 연결되어있어 사업체 명칭이 혼용되었다. 본고에서는 혼동을 방지하고자 1차 자료에 ‘김형제상회’ 혹은 ‘리들리 건재회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리들리 과수·묘목 사업’으로 칭하도록 한다.

25) “New Nursery Valley’s Finest,” *The Reedley Exponent*, December 15, 1955, p.1.

26) Marn J. Cha, op. cit., pp.80-81.

소유한 품종은 크기 면에서 배송에 적합하고 과육이 노랗고 맛이 풍부하다는 장점으로 큰 수익성을 보장하고 있었다.²⁷⁾ 다른 지역의 한 과수업자가 허가 없이 나무 종자를 심어 이를 김형순이 고소하여 승소한 사건도 있었다.²⁸⁾

리들리 과수·묘목 사업은 한인사회를 넘어서서 지역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 물론 한인들이 대거 고용되었으며 한인 중 일부는 총괄 감독 일을 맡았다. 예를 들어, 1944년 김형제 포장회사 총괄 감독관은 장씨(E. H. Chang)로 기록되어 있다.²⁹⁾ 그러나 한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과 민족의 지역민을 고용하였다. 1951년 기록에 의하면 서사 얼 헐트퀴스트(Earl Hultquist)와 비서 리디아 알 부인(Mrs. Lydia Ahl)이 배치된 회계 사무실이 따로 있었다.³⁰⁾ 몇 년 후에는 난초 전문가이자 총괄 매니저로 윌리엄 성크(William Shunk)와 과일나무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스테포드(H. B. Stafford)를 각각 고용했다.³¹⁾ 1959년 북송아 포장일 업무는 다이뉴바 출신의 제임스 브라운 부인(Mrs. James D. Brown)의 주도로 운영되었으며 60명의 여성과 15명의 남성 지역민이 고용되었다. 1963년 리들리 견제회사에서 총지배인으로 일하면서 경험을 쌓은 후, 일부 견제회사 땅을 매입하여 독자적 사업체인 선셋 견제회사(Sunset Nursery)를 차린 알 디토(Al Ditto)란 인물도 있었다.³²⁾

한인이 소수의 이민족을 구성했던 서부에서 리들리 견제회사의 존재는 미주 한인 경제사에서 가히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다.³³⁾ 견제회사 운영에 관련된 소문이 돌아 이를 정정하는 보도가 지역신문에 거론될 정도로 리들리 견제회사는 지역 경제에 큰 관심사 중 하나였다.³⁴⁾ 1955년에 발행된 한 기사문에 따르면, 리들리 과수·묘목 사업체는 “서부 전역에서 가장 훌륭하고 산 호아킨 밸리

27) “Available Only at Reedley Nursery Patented Nectarines for Profitable Planting,” *The Fresno Bee*, February 15, 1953, p.84.

28) “Reedley Nursery Wins Patent Violation Suit,” *The Fresno Bee*, July 14, 1957, p.54

29) “Western States and Kim Bros. houses Are Lost,” *The Reedley Exponent*, August 21, 1947, p.1.

30) “Kim Bros. Move Into New Office,” *The Reedley Exponent*, December 20, 1951, p.1.

31) “New Nursery Valley’s Finest,” *The Reedley Exponent*, December 15, 1955, p.1.

32) 선셋 견제회사는 1970년 4월 9일에 공식적으로 개장하였으며 정원과 잔디 도구, 종자, 살충제, 비료, 과일 및 수목 등을 판매했고 디토의 아내와 아들이 새 견제회사를 관리했다. 이에 관하여는 “New Nursery Opens April 9,” *The Reedley Exponent*, April 9, 1970, p.5 참조.

33) 중국인의 미국 서부 이민 시작은 1850년대 전후로 거슬러 올라가며, 일본인 노동자들의 취업 이민은 1868년부터 시작된다. 한인은 이들보다 훨씬 늦은 시기에 이민을 시작하였기 수적으로 열세하였다. 이에 관한 정보는 이자경, 2003, 『중가주 초기 한인 이민사 개요』, 『미주지역 한인이민사』, 국사편찬위원회, 127-158쪽 참조.

34) “Reedley Nursery Is Not Closing,” *The Reedley Exponent*, September 14, 1966, p.5

(San Joaquin Valley)에서 가장 현대적인 견제회사”였다.³⁵⁾ 1956년 캘리포니아 주 박람회 농산업 부문에서 당당히 1등을 거머쥐기도 했다.³⁶⁾ 르그랑 복숭아를 주요 종목으로 내세우며 다양한 과일, 과수,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상품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특정 기간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가 하면 여러 지역 행사에 참여하며 지역민의 관심을 이끈 점 또한 사업을 성공으로 이끈 열쇠로 보인다.



사진 1. 1960년 리들리 견제회사(김형제 상회) 직원³⁷⁾

사진 2. 리들리 견제회사 홍보물³⁸⁾

35) “New Nursery Valley’s Finest,” *The Reedley Exponent*, December 15, 1955, p.1.
 36) “Kim bros. Win Top Fair Honors,” *The Reedley Exponent*, September 13, 1956. p.1.
 37) “Harris S. Kim,” 한인 역사박물관, <https://kahistorymuseum.org/harry-s-kim/>(검색일: 2023.8.3.)
 38) *The Fresno Bee*, March 1, 1953, p.76(좌); *The Reedley Exponent*, May 24, 1967,

이때 주목할 점은 한덕세가 단순히 남편 김형순이나 스승인 김호를 보조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동 사업가로서 이름을 날리고 있었다는 부분이다. 한덕세가 “데이지 김”이라는 이름으로 김형순, 김호와 함께 공동 사업자로 등록된 기사가 계속해서 등장한다. 위에서 언급한 고소 사건에서도 김형순은 공동소유주 중의 한 명으로 기록되어 있다.³⁹⁾ 1947년 화재로 포장 건물 일부가 소실되었을 때 이를 기록한 기사문도 명확하게 해당 사업체가 ‘공동’ 소유주로 운영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⁴⁰⁾ 한덕세의 공동 소유권 및 운영권을 증명하는 또 다른 기사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하단에 서명한 김호(CHALS HO KIM), 김형순(HYENG S. KIM), 한덕세(DAISY KIM)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캘리포니아 프레즈노 카운티 리들리 시에서 공동 파트너로서 김형제상회(KIM BROTHERS) 및 리들리 건재회사(REEDLEY NURSERY)라는 가상의 회사 이름으로 사업을 행하고 있음을 공지합니다. 해당 파트너십의 주요 사업장은 캘리포니아 프레즈노 카운티 리들리 시 1411 J Street에 있습니다. 본 파트너십의 전 구성원 이름과 각각의 거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하략).⁴¹⁾

동일한 내용의 1960년 9월 8일 기사⁴²⁾에도 HYENG S. KIM, DAISY KIM, CHARLES HO KIM이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공동 파트너임을 증빙하는 공지가 등장한다. 심지어 1972년에는 한덕세가 독자적으로 상기한 두

p.14(중간); *The Reedley Exponent*, February 5, 1953, p.2.(우)

39) “Reedley Nursery Wins Patent Violation Suit,” *The Fresno Bee*, July 14, 1957, p.54

40) “Western States and Kim Bros. houses Are Lost,” *The Reedley Exponent*, August 21, 1947, p.1.

41) “Certificate of Partnership Doing Business under Fictitious Firm Name,” *The Reedley Exponent*, May 25, 1944, p.4. 저자 번역. 해당 원문은 다음과 같다. Notice is hereby given that the undersigned, CHAS HO KIM, HYENG S. KIM and DAISY KIM have formed a partnership and are transacting business as co-partners in the City of Reedley, County of Fresno, State of California, under the fictitious firm names of “KIM BROTHERS,” and “REEDLEY NURSERY”; that the principal place of business of said partnership is situated at 1411 J Street, City of Reedley, County of Fresno, State of California. That the full name of all the members of such partnership and their respective place of residences are as follows.

42) “Legal Notice,” *The Reedley Exponent*, September 8, 1960, p.5. 다만 이때 사업장 주소는 9번가 I 스트리트로 기재되어 있어 중간에 사업장 위치를 변경한 것으로 사료된다.

사업체의 운영권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에 관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먼저 1968년 김호가 85세의 나이로 별세하였다.⁴³⁾ 김호는 별세 5년 전인 1963년 즈음 거주지를 로스엔젤레스로 옮겼었다. 이에 1960년대 이후부터 견재회사 운영은 김형순-한덕세의 2인 체제로 이루어졌고 김호의 빈자리는 그의 아들인 김경한(Kyunghan Kim)이 대신하였다.⁴⁴⁾ 해당 사건을 기록한 지역신문 기사에 따르면 리들리 과수·묘목 사업체는 다양한 종류의 자두, 복숭아, 아몬드 등에 관한 46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1972년 당시 합병한 사업체와 함께 모든 특허권 또한 한덕세에게 속하게 되었다.⁴⁵⁾ 2인 체제를 유지하지 않고 한덕세 일인 체제로 이전하게 된 까닭에 관하여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다만 한덕세보다 여덟 살 많은 김형순이 당시 건강상의 문제로 운영이 어렵게 되었으리라 추정해 본다. 동시에 한덕세의 리들리 과수·묘목 사업에 기여를 공식화하는 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사진 3. 김호 부부의 회혼례 기념사진⁴⁶⁾

43) “Charles Ho Kim,” *The Fresno Bee*, January 7, 1968, p.34.

44) 『故金平先生』, 『조선일보』, 1968.2.20.

45) “Daisy Kim Becomes Sole Owner of Nursery,” *The Reedley Exponent*, November 16, 1972, p.4.

46) 한국학중앙연구원, 『김호 부부 회혼례 기념』, 세계한민족문화대전, <http://www.okpedia.kr/MultimediaView/MultimediaViewPopup?contentsId=GC95100470&multiMediaId=GC951P01081&localCode=naw#lg=1&slide=0>(검색일: 2023.8.16.) 해당 사진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일제 강점기 미국 지역 한인 단체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독립운동에 헌신한 애국지사 김호 부부의 회혼례 기념 사진이다. 김호와 김형순은 김브라더스라는

실제로 한덕세가 사업에 공헌한 바는 아주 컸다. 먼저 리버사이드와 피닉스를 거쳐 리들리에 정착한 김형순-한덕세 부부는 리들리한인민숙과 리들리한인 직업소개소를 설립하였다. 한덕세는 김형순의 사업을 돕고자 가사도우미나 어린이 보살핌 등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피아노와 성악 교습을 제공하는 음악강습소를 운영하자 문전성시를 이루어 가정 수입에 상당한 보탬이 되었다. 그녀의 이러한 헌신적인 경제 활동은 이후 리들리 과수·묘목 사업에 재정적 원천이 되었다.⁴⁷⁾ 김형순-한덕세 부부의 둘째 딸 루스와 김호-이숙중 부부의 장남인 김경한 사이에서 태어난 딸 데이지 에타는 그녀의 인터뷰⁴⁸⁾를 통해 한덕세와 김형순이 똑같이 지분의 반을 투자하여 복숭아 사업을 시작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한덕세가 스승인 김호를 세 번째 경영진으로 추대하면서 자신의 지분 반을 나누었다는 사실을 덧붙였다. 이어지는 증언에 따르면 한덕세는 농업지역이던 리들리에서 25마일 정도 떨어진 프레즈노 거주 엘리트 가정 아이들을 주요 상대로 하여 음악 개인교습을 실시했었는데 이때 쌓은 지역사회와의 친분이 김형제상회가 주류 사업체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무엇보다 김형순과 김호를 이어 준 이가 바로 한덕세였다. 이화학당 출신이었던 한덕세가 현재 경기고에 해당하는 한성중학교 1회 졸업생으로 이화학당에서 가르치다가 1914년 이민하여 서부에 거주 중이던 김호를 연결해 주었기에 동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덕세는 독립 자금을 모금하려 미주를 순회하고 있던 스승 김호를 우연히 만났고, 이후 동업 형태로 김형제상회를 경영하게 되었다. 이들이 만난 장소에 관하여는 하단의 ‘독립운동 활동’ 장에서 상세히 다루겠다.

한덕세가 남편 김형순과 스승 김호를 연결하여 3인 체제로 설립한 리들리 과수·묘목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후에 맡았던 구체적 업무는 회계였다. 김형순은 과일을 수확할 뿐만 아니라 리들리에서 로스앤젤레스 차이나타운에 있는 과일 도매시장까지 200마일 정도 되는 거리를 직접 트럭으로 운전

회사를 차려 크게 성공했으며 독립운동에도 크게 기여했다. 사진 앞줄 가운데가 김호의 부인 이숙중이고 뒷줄 왼쪽 첫 번째가 김형순의 부인 한덕세, 두 번째가 김형순, 세 번째가 김호이다.”

47) 김형목, 『독립운동 재정지원을 도운 김형순과 한덕세 부부』, 독립기념관, <https://www.i815.or.kr/upload/kr/magazine/magazine/70/post-751.html> (검색일: 2023.8.3.)

48) 『김씨형제상회의 숨겨진 보스 그가 진정한 영웅』, 『중앙일보』, 2016.10.26. 해당 신문 기사는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대학(California State University) 유의영(Eui-Young Yu) 교수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데이지 에타가 외할머니 한덕세와 어머니 루스로부터 음악적 재능을 물려받아 전문 연주자로서 수많은 공연에서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이고 다양한 작곡가들에게 사사 받은 사실을 함께 전하고 있다.

하며 배달했다. 매일 이른 아침 물건을 트럭에 싣고 로스앤젤레스로 배달한 후 차이나타운에서 점심을 먹고 다시 돌아오는 여정이었다. 이들 사이에 그 흔한 다툼조차 없었다. 각자 회사 외부와 내부의 일을 배분하여 처리했으며 서로의 업무를 신뢰하고 간섭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때 한덕세는 올바른 경제 관념으로 회계를 담당하고 있었다. 사업체 경영의 중요한 회계 업무를 담당한 한덕세는 “김(씨)형제상회의 숨겨진 보스”이자 “진정한 영웅”이었다.⁴⁹⁾

2) 종교 활동

한덕세는 김형순과 함께 리들리한인장로교회(Reedley Korean Presbyterian Church)를 설립하고 확장해 나가는 데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1938년 현재 위치에 교회당을 건축할 당시 40여 명의 신도가 등록되어 있었다.⁵⁰⁾ 흥미로운 사실은 리들리한인장로교회가 원래 감리교선교회 소속이었다는 점이다. 1919년 2월 한 한인 가정의 주택을 예배 처소로 정하고 남감리교회 순행 전도사를 초청하여 예배를 시작하였다.⁵¹⁾ 1922년 3월 26일 남감리교회 선교부에 연락하여 한인감리교회로 정식 설립되었는데 이때 공식적으로 등록한 예배당 주소가 김형제상회 가옥 즉 김형순-한덕세 부부의 자택이었다. 『신한민보』 1931년 7월 2일 기사문은 리들리 한인교회가 감리교회로 출발하였으나 “재정 곤란을 이유로 미국 장로교회로 이전 시키기로 결정하였으며 5월 마지막 주일에 이삼 음 목사의 주례하에 전환되었다”라고 보도하였다.⁵²⁾ 그 구체적 이유에 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단순히 재정적 이유뿐만이 아니라 한국 내 신사참배 문제가 불거지자 감리교 측과 의사 충돌 후 연락이 단절되면서 장로교를 대신 택했을 가능성, 두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거라는 가능성 등이 제기된 바 있다.⁵³⁾

49) 위의 글.

50) 주소는 다음과 같다. 1408 J St, Reedley, CA 93654, U.S.A.

51) 처음 예배를 드린 한인 가정은 전성용으로 남감리교회 순행 전도사는 임정구이다.

52) 『우리들리에 장로교회』, 『신한민보』, 1931.7.2.

53) 김원용은 “한국내의 신사참배 문제로 인하여 감리교회와 의사가 충돌되어 연락을 끊은 후 장로교파를 택했다”라고 기록한 바 있으며, 차만재와 증가주 한인 이민 역사 연구가 이자경은 당시 일제 강점하에 있던 시대적 배경과 함께 미국의 경제공황등 당시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에 단순히 재정 때문만이 아닌 위의 정치적 이유를 포함한 복합적인 요인으로 교단을 옮겼을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리들리한인장로교회 감리교서 장로교회로 교단변경 이유 ‘상이’』, 『한국일보』, 2018.11.22 참조.



사진 4. 1959년 리들리한인장로교회⁵⁴⁾

감리교에서 장로교로 교단을 변경한 배경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장로교회로 새롭게 시작한 리들리 한인교회 역사에 김형순-한덕세 부부의 노고가 있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이를 예증하듯 새로운 예배당 건축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한덕세가 독창으로 찬송을 무대에 올렸다.⁵⁵⁾ 또한 김형순의 노고를 기리는 특별 예배가 1950년에 있었는데 이때 김형순의 리들리한인장로교회에 기여를 상세히 기록한 글이 있어 두 부부의 리들리 내 종교인으로서의 입지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해당 글의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리들리한인장로교회는 김형순(Harry Kim으로 기록)을 중심으로 25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2년 동안 감리교회였으며, 1927년 장로교회가 된 후 계속 장로교단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씨는 본 교회 설립 초창기부터 활동하였으며 그가 장로 안수를 받은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다가올 토요일 축하 행사는 그의 안수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략)... 1921년 이후 김씨의 부동산은 4개

54) "Korean Presbyterian Church. Reedley, California. 20th anniversary," Korean American Archive Photograph Set, Korean American Digital Archiv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https://digitallibrary.usc.edu/asset-management/2A3BF1O4I51R7?FR_=1&W=2560&H=961(검색일: 2023.8.3.)

55) "Reedley House of Worship Will be Dedicated," *The Fresno Bee*, February 25, 1939, p.12.

의 랜스에 500에이커의 땅, 작년에 지어진 콘크리트 강철 포장 하우스를 포함하며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리들리 건재회사까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⁵⁶⁾

위의 글에서는 강조하고 있지 않으나 한덕세는 남편 김형순과 함께 리들리 지역의 한인 장로교회를 성장시켜 나갔다. 리들리뿐만 아니라 동남쪽으로 8마일가량 떨어진 옆 동네 다이뉴바에 위치한 한인교회 활동에도 참여하였다. 그 예로 1921년 12월 17일 중가주에 있는 한인 42명과 함께 다이뉴바 한인교회에서 시사연구회를 창단하였다. 시사연구회의 창단 목적은 임시정부를 개조하려는 국민대표회의 개최를 반대하고 위기에 처한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함이었다.⁵⁷⁾ 1929년에는 리들리 한인교회 소속 해동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아동 가극대를 창단하여 같은 해 4월 1일 샌프란시스코 한인교회에서 공연을 개최하기도 했다.⁵⁸⁾ 이렇듯 한덕세는 리들리와 다이뉴바를 중심으로 중가주 내 한인 교회의 설립과 확장에 힘쓰며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다져 나갔다.

4. 독립운동

위에서 서술한 경제 및 종교 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 활동은 당시 한인들의 큰 관심사였던 조국 독립을 향한 움직임이었다. 특히 한덕세가 남편과 함께 경제, 종교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기 시작한 1920년대 초 한반도 독립을

56) "Harry Kim to Be Paid Tribute," *The Reedley Exponent*, June 8, 1950, p.1. 저자 번역. 해당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Korean church here was established 25 years ago with Harry Kim as one of its founders. It was a Methodist church for two years, then in 1927 became Presbyterian church which it has remained since then. Mr. Kim although active from the start was not ordained as an elder until 10 years ago, and the celebration Saturday will officially mark the 10th anniversary of his ordination. (...) In the years since 1921 the Kim properties have grown to the extent of 500 acres of land in four ranches, the concrete and steel packing house built last year, and the Reedley Nursery which is operated as a separate business.

57) 당시 임시정부는 일제의 탄압으로 인한 간도 한인촌의 몰락과 임시정부 내 연통제와 교통국의 소멸, 파리강화회의 성과에 대한 실망, 재정 부족에 따른 활동 위축과 독립운동가의 생계 곤란 가중, 내부 분열과 지역색 갈등, 사상 대립 등으로 존폐 위기에 처하였다. 이런 가운데 독립운동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려는 움직임들이 일기 시작하여 국민대표회의 소집을 제창하였고 이들은 임시정부와 의정원 해산을 요구하였다.

58) 『한덕세』, 세계한민족문화대전, <http://www.okpedia.kr/Contents/ContentsView?contentId=GC95103389&localCode=naw&nodeId=D3%2F1>(검색일: 2023.8.8.)

향한 열망은 3·1운동 이후 미국 땅에서도 강하게 표출되고 있었다. 리들리를 포함한 중가주에서도 꽤 큰 규모의 3·1운동 기념행사가 전개되었다. 한덕세가 스승 김호를 만난 배경에도 3·1운동 기념행사가 자리하고 있었다.

1920년 다이뉴바에서 한인들이 3·1운동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때 참여한 한인 수가 350여 명이었다. 당시 중가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한인들 모두가 참석한 것과 마찬가지로였다. 흰색 옷을 곱게 차려입은 여성들과 어두운색의 정장 차림을 한 남성들이 차에 올라타서 행진하였다. 그 가운데 대한제국 군인 의복을 입은 한인 대표가 말을 탄 채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다. 그 뒤로는 한인들이 수십 대의 자동차를 타거나 걸어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휘날리며 다이뉴바 시내를 돌았다. 바로 이 기념행사에서 한덕세와 김호가 만나게 된 것이었다.

한편 1921년 11월 11일 리들리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승전기념일을 맞이하여 1882년 한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을 축하하는 주제로 꽃차(flower floats)를 만들어 시내를 행진하였다.⁵⁹⁾ 한인들이 3·1운동 기념일뿐만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 승전기념일을 주목한 이유는 바로 세계대전의 종결로 인해 3·1운동이 가능해졌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⁶⁰⁾ 미주 한인들은 제1차 세계대전 승전기념일을 한반도 독립을 호소하는 기회로 삼고자 퍼레이드를 통해 대한제국이 미국과 수교 조약을 맺은 ‘독립’ 국가임을 대외적으로 알렸다. 역시 다이뉴바 등지의 중가주 한인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이 행사는 현지 미국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한인 이주민들의 자존감을 크게 증진하여 조국 독립을 위한 역량 결집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⁶¹⁾

한덕세는 1919년 창설된 대한민국민회(이하 국민회로 약칭)와 대한인여자에 국단⁶²⁾ 회원으로서 조국 독립 열망을 표출하는 한인 행사에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었다. 한국 여성들이 희생한 3·1운동 소식에 감명받아 1919년 5월 18일 새크라멘토 한인부인회와 다이뉴바 신한부인회가 연합하여 독립운동을 위한

59) “Armistice Day Celebration Was Success in Every Way,” *Reedley Exponent and Ledger*, November 15, 1921, p.1.

60) 이현희, 2020, 「강영각의 언론활동과 하와이 한인사회의 현실 인식-The Young Korea 와 The American Korean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4, 한국민족운동사학회, 40-41쪽.

61) 『리들리 타운 퍼레이드』, 세계한민족문화대전, <http://www.okpedia.kr/Contents/ContentsView?contentsId=GC95100350&localCode=naw>(검색일: 2023.8.8.)

62) 대한여자에국단에 관하여는 민병용이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 내용을 참조하였다. 민병용, 2017, 『3·1만세 이후 미주 여성의 독립운동』, 『신민회 창립 110주년 기념 미주 국제학술회의 발표집』,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180-197쪽.

부인단체 설립을 추진했다. 그 결과로 1919년 8월 국민회 중앙총회 인가를 받아 대한여자애국단이 창단되었다. 남성은 국민회, 여성은 대한여자애국단을 대표 독립단체로 내세워 미주에서 남성과 여성 한인 단체가 통합을 이루어 독립운동을 펼쳤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한여자애국단은 독립운동 활동을 후원하는 동시에, 일본 상품과 일화 배척, 군자금 모집, 민족 문화 보존 및 소개를 위한 각종 문화행사와 공연 등을 주관하였다. 자녀들의 한국어교육과 교회를 후원하고 국민회 주최 사업을 위한 재정적 도움을 제공하였다. 한반도나 간도에 거주하는 동포가 어려움을 당할 때면 구제금을 보내기도 했다.

대한여자애국단 본부는 창립 직후부터 1923년 10월까지 다이뉴바에 자리하고 있었다. 1933년 3월까지 샌프란시스코에 자리 잡았다가 이후 로스앤젤레스로 거처를 옮겼다. 또한 다이뉴바, 샌프란시스코, 새크라멘토, 윌로우스, 로스앤젤레스, 달라노, 리들리, 멕시코 메리다, 쿠바 맛단사스, 아바나, 갈테나스에 11개 지부를 설치하였다. 한덕세는 본부뿐만 아니라 국민회 중가주 지방회 및 대한여자애국단 리들리 지부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940년 국민회 중가주지방회 3.1절 기념행사에서 남녀 동포 52명이 모인 가운데 독창을 선사한 바 있다.⁶³⁾ 1944년 하반기에는 로스앤젤레스 국민회 총회관에서 개최된 재미한족전체대표회의에 대한여자애국단 대표로 참석해 주미외교위원회 외교위원 15인을 선출했다.⁶⁴⁾

한덕세를 포함한 리들리 한인의 독립운동, 그리고 한반도 독립 후 정치 활동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북미 국민회 주요 회원으로서 반이승만 성향을 띄고 있었다는 점이다. 중가주 한인사회는 재정 및 모금 문제에서 비롯된 이승만과 국민회 사이의 갈등으로 분열되어 있었다.⁶⁵⁾ 이러한 정치적 갈등에는 김형순-한덕세 부부와 이승만 사이에 개인적인 일도 연루되어 있었다. 한덕세와 김형순은 처음 이승만을 지지하였으나 이승만이 결혼하면서 분열을 겪었다. 이승만은 김형순-한덕세의 장녀 메리에게 구애한 적이 있었다. 당시 메리는 이미 약혼한 상태였기에 김씨 부부는 이승만의 구애를 극구 반대했다. 더구나 이승만은 “한국인은 한국인끼리 결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었다. 따라서 그가 막상 오스트리아계 여성과 결혼하는 것이 위선적 행위라고 생각했다.⁶⁶⁾

63) 중가주지방회, 『1940년도 중가주지방회 3.1절 기념행사 식순(1940.3.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https://search.i815.or.kr/sojang/read.do?isTotalSearch=Y&doc=&adminId=2-K04344-000>(검색일: 2023.8.20.)

64) 『한(김)덕세』,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https://knamf.org/%ED%95%9C%EA%B9%80%EB%8D%95%EC%84%B8/>(검색일: 2023.8.16.)

65) Marn J. Cha, op. cit., p.69.

아쉽게도 한덕세가 자신의 정치적 생각이나 의견을 밝힌 글, 기고, 연설, 혹은 메모 등을 찾지 못했다. 다만 리들리 지역 독립운동 활동 분석을 통해 그녀의 정치적 색채를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김형순-한덕세 부부의 장녀 메리가 결혼한 김용중(金龍中, 1898-1975)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독립운동가, 통일운동가, 민주화운동가이자 언론인으로 알려진 김용중은 장모 한덕세와 같이 전북 출신 이민자였다. 금산읍 중도리⁶⁷⁾에서 출생한 김용중은 충청남도 논산과 전라북도 전주, 전라남도, 제주를 거쳐 전라남도 목포에서 유아기를 보냈다. 일찍이 미국으로 이민 간 그는 1928년 5월 로스앤젤레스에서 또 다른 전북 출신이자 고향 선배인 송철(宋哲, 1896-1986)을 만나 함께 김용중·송철도매상(K & S Jobber)을 차려 과일·채소를 위탁 판매하면서 사업가로 성장했다. 1920년대 서부지역에서 농업 관련 사업가로 정착하였다는 점에서 김형순-한덕세-김호와 긴밀한 연결고리가 있었다.

김용중은 이후 학업에 충실하여 하버드 대학교, 남가주 대학교, 콜롬비아대학교 등에서 공부하며 독립운동에 헌신할 역량을 쌓았다. 1940년 12월 제5차 국민회 대표대회에 몬타나지방 대표로 참가하여 중앙상무위원회 선전위원으로 선임되었다. 1941년에는 미주지역 한인 단체 통합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조직된 재미한족연합위원회 북미 집행부 선전 과장으로 발탁되었다. 1943년 9월 워싱턴 D.C.에 한국문제연구소(Korean Affairs Institute)⁶⁸⁾를 설립하고 기관지로 『한국의 소리』를 간행하며 미국 정관계 및 국제기구 인사들에게 한국의 실상과 독립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에 힘을 쏟았다. 요컨대 김용중의 독립운동은 ‘선전’에 주력하는 것이었다. 광복 후에도 주변국의 개입을 배제하고 통일위원회를 구성하여 단일 통일국가를 설립하자는 중립화 통일론 제시하면서 국가 건설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⁶⁹⁾

김용중의 선전 활동에 리들리 한인사회의 지지는 큰 영향력을 끼쳤다. 실제로 김용중은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문화, 역사를 알리는 활동을 펼치면서 리들리가 한국문제연구소의 “정치적 전초기지” 역할을 했으며 자신의 활동을 대변하는 데에 “리들리 협력자”들의 공로가 매우 컸음을 강조하였다.⁷⁰⁾ 1940년

66) Ibid., pp.92-93.

67) 현재 충청남도로 지정되어 있으나 당시는 전라북도로 편성되어 있었다.

68) 한국사정사, 한국사정연구소, 조선사정소개협회, 재미조선사정소개소 등으로도 소개되었다.

69) 김용중의 활동에 관하여는 정병준, 2004, 「김용중의 생애와 통일·독립운동」, 『역사문제연구』 12, 역사문제연구소, 11-52쪽; 오재원, 2020, 「재미 한인 김용중의 선전 독립운동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참조.

대에 이르러 리들리 한인사회 내에 반이승만 성향이 더욱 팽배했으며 이는 서부 한인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국민회, 대한여자애국단에 소속된 리들리 지역의 독립운동가 한덕세 또한 한국 중립화 통일론에 동조하며 독립운동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5. 맺음말

본 연구는 전북 출신으로 이화학당 졸업 후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이주한 한덕세의 증가주 지역 내 활동을 분석하여 그녀의 삶 속에서 표상되는 근대 디아스포라 한인 여성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본문에서 주장한 요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한덕세는 남편 김형순과 스승 김호를 연결하여 3인 체제의 공동 경영으로 김형제상회와 리들리건재회사를 성장시켰다. 그녀의 주요 업무는 초기 자금 지원, 인맥에 따른 친분을 토대로 증가주 영농사업에서의 고객을 확보하는 일과 회계였다. 둘째, 리들리, 다이뉴바를 중심으로 한 증가주 내 한인교회의 설립과 확장에 힘쓰며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갔다. 셋째, 국민회와 대한여자애국단에 소속된 리들리 그룹 독립운동가로서 한국 중립화 통일론을 취하며 한반도 독립, 피해민들의 구제, 서부지역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치 활동을 펼쳤다.

상기한 한덕세의 경제, 종교, 독립운동 활동은 전북 출신 여성이 디아스포라 독립운동사와 미주 한인 경제·문화사에 이바지한 실례를 제공한다. 기존의 20세기 초 미주 한인 여성은 다수를 차지했던 기호, 영남 출신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전북 인물사 반경을 넓혔다는 의의도 함께 지닌다. 더불어 한덕세와 같은 전북 출신으로 캘리포니아 내 사업가로 크게 성공한 김용중, 송철 등의 존재는 당시 한인사회와 지역 경제에 전북 출신자의 기여가 상당했음을 보여준다.

요컨대 한덕세는 기존에 주목받지 못했던 전북 출신 미주 한인 여성으로서 20세기 초 사업가, 종교인, 독립운동가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단순히 남편의 활동을 보조하는 것을 넘어서서 남녀 공동 체제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디아스포라 한인 역사

및 여성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만 본 연구는 한덕세의 출생과 성장 과정, 그리고 한덕세 개인이 각 활동에서 이룬 성과를 좀 더 면밀하게 밝히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긴다. 더불어 한덕세, 김용중, 송철 등 전북 출신 사업가들의 출신 배경이 먼 이국땅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데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지에 대해 궁금증을 품게 되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의문점을 관련 자료 검토와 분석을 통한 필자의 후속 연구과제로 남긴다.

논문접수일: 2023. 11. 06. / 심사개시일: 2023. 11. 22. / 게재확정일: 2023. 12. 15.

참고문헌

1. 기초자료

『신한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The Fresno Bee*, *The Reedley Exponent*, *Reedley Exponent and Ledger*.

2. 단행본

- 민병용, 1986, 『미주이민 100년사』, 한국매일신보사.
- 이덕희, 2003, 『하와이 이민 100년』, 중앙M&B출판.
- _____, 2008, 『한인기독교회 한인기독교학원 대한인동지회』, 한인기독교회·동지회.
- 이윤옥, 2018, 『여성독립운동가 300인 인물사전』, 열레빗, 44-45쪽.
- 홍선표, 2011, 『자주독립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재미한인의 꿈과 도전』, 연세대학교 출판부.
- _____, 2012, 『한국의 독립운동가들 제33권: 재미한인 독립운동의 표상 김호』, 역사공간.
- Cha, Marn J., 2010, *Koreans in Central California (1903-1957): A Study of Settlement and Transnational Politics*, Lanham: UPA.
- Patterson, Wayne, 2000, *The Ilse: First-Generation Korean Immigrants in Hawaii, 1903-1973*,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Shinn Sunoo, Sonia, ed. 2002, *Korean Picture Brides: A Collection of Oral Histories*, Davis: Korean Oral History Project.

3. 논문

- 고정휴, 2004, 「대한인동지회 회원 분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0권, 417-463쪽.
- 김도형, 2010, 「하와이 대조선독립단의 조직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7권, 209-263쪽.
- 김지원, 2016, 「미국의 일본인 배척운동과 한인 사진신부의 이주, 1910~1924」, 『미국사연구』 44권, 289-318쪽.
- 민병용, 2017, 「3·1만세 이후 미주 여성의 독립운동」, 『신민회 창립 110주년 기

- 넘 미주 국제학술회의 발표집』, 177-197쪽.
- 박순섭, 2016, 「1920~40년대 玄楯의 재미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6권, 5-47쪽.
- 박종연, 2012, 「在美韓人 黃思溶의 민족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2권, 157-184쪽.
- 박준현, 2017, 「하와이·미주 사회에서 閔贊鎬의 한인 교육과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91권, 5-42쪽.
- 오은영, 2005, 「하와이 대한부인구제회 연구(1919~1945)」,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오재원, 2020, 「재미 한인 김용중의 선전 독립운동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이명화, 2012, 「재미 실업가 김종립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3권, 113-168쪽.
- 이자경, 2003, 「중가주 초기 한인 이민사 개요」, 『미주지역 한인이민사』, 127-158쪽.
- 이현주, 2002, 「한말 인천의 화교유입과 하와이 이민」, 『한국독립운동사연구』 8권, 8쪽.
- 이현희, 2020, 「강영각의 언론활동과 하와이 한인사회의 현실 인식-The Young Korea와 The American Korean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4권, 5-54쪽.
- 장규식, 2017, 「도산 안창호와 북미 한인사회」, 『신민회 창립 110주년 기념 미주 국제학술회의 발표집』, 199-234쪽.
- 장태한, 2019, 「3·1운동과 미주 한인사회」, 『한림일본학』 35권, 128-161쪽.
- 정병준, 2004, 「김용중의 생애와 통일·독립운동」, 『역사문제연구』 12권, 11-52쪽.
- _____, 2005, 「김호의 항일독립운동과 정치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3권, 163-204쪽.
- 최희영, 2021, 「전수산의 공연 활동에 구현된 20세기 초 한인 디아스포라 근대 여성의 표상」, 『한국문화』 95권, 207-228쪽.
- 홍선표, 2009, 「해방 이전 대한인동지회의 조직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3권, 417-463쪽.
- _____, 2016, 「1900~1930년대 하와이 한인사회의 선전·외교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89권, 5-42쪽.
- _____, 2017, 「하와이 한인 여성단체와 사진신부의 독립운동」, 『여성과 역사』

26권, 1-26쪽.

Kim, Do-hyung, and Yǒng-ho Ch'oe, 2000, "The March First Movement of 1919 and Koreans in Hawai'i," *From the land of hibiscus: Koreans in Hawai'i 1903-1950*, ed. Yǒng-ho Ch'oe,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pp.123-152.

Kim, Jiwon, 2020, "Korean Pioneer Women: Picture Brides and the Formation of Upwardly Mobile Korean Families in California, 1910s-1930s," *Korea Journal*, vol.60, no.1, pp.207-238.

Kim, Robert Hyung-Chan, 2012, "Soon Hyun and His Leadership in the Hawaiian Branch of the Korean National Revolutionary Party During World War II," *Acta Koreana*, vol.15, no.1, pp.163-199.

Yang, Eun-Sik, 1984, "Korean Women of America: From Subordination to Partnership, 1903-1930," *Amerasia Journal*, vol.11, no.2, pp.1-28.

4. 기타자료

독립기념관, <https://www.i815.or.kr/>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https://search.i815.or.kr>

세계한민족문화대전, <http://www.okpedia.kr>

한인 역사박물관, <https://kahistorymuseum.org>

City of Reedley, <https://reedley.ca.gov/>

USC Digital Library, <https://digitallibrary.usc.edu>

<Abstract>

Study of the Activities of Han Deok-se, a Prominent Female Figure from Jeonbuk Province, in Central California

Heeyoung Choi*

This paper explores Han Deok-se's historical activities in central California. Han, born into a noble family in Jeonbuk, migrated to the US with her husband after graduating from Ehwa Haktang and settled there. Han orchestrated a strategic collaboration involving her husband, Kim Hyung-soon, and her mentor, Kim Ho, resulting i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Brother Kim's Company and Reedley Nursery within a tripartite management structure. Her multifaceted responsibilities encompassed oversight and accounting of these entities. Furthermore, Han embarked on a distinct path of self-identification as a devoted adherent of Christianity, with a pronounced emphasis on spearheading the establishment and expansion of Korean churches within the environs of Reedley and Dinuba. Primarily acclaimed for her resolute advocacy of Reedley Group's endeavors for independent Korea, she notably embraced the doctrine of Korea's neutralization and unification. As a prominent figure within the National Association and the Korean Women's Patriotic Corps, her efforts encompassed a diverse array of undertakings, ranging from championing homeland independence to rendering assistance to the afflicted and fostering the growth of the Korean community. This comprehensive inquiry, which systematically delineates her undertakings spanning the realms of economy, religion, and politics, serves to proffer exemplary instances of women hailing from Jeonbuk contributing significantly to the annals of the diasporic Koreans' independence movement, alongside the broader economic and cultural tapestry of Korean Americans. Additionally, the presence of Kim Yong-joong and Song Cheol, fellow natives of Jeonbuk who ascended to prominence as accomplished entrepreneurs in California, underscores the contributions made by Jeonbuk provincials to the contemporary Korean societal landscape and local economic

* Visiting Scholar, Department of History,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milieu in central California.

Key Words : Han Deok-se, Women from Jeonbuk, Kim Brothers Company,
Reedley Nursery, Korean Church, Neutralization Unification,
Reedley Group, Korean community in central California